

# 늑혼을 둘러싼 사회 관계망과 전언 분석

-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성현공숙렬기〉를 중심으로

이주영\*

1. 서론
2. 늑혼의 진행과정 비교
3. 늑혼에 관여하는 사회관계망
4. 늑혼에서 표출되는 전언의 특성
5. 결론

## <국문초록>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성현공숙렬기〉 등 주요 삼대록계 소설에 들어있는 공주의 늑혼 사건들은 작품마다 지니는 개성과 연관지어 차이를 해명할 수 있다. 우선, 세 작품에서는 불의를 행한 가문의 구성원들을 배제하거나 포용하는 경향상의 차이가 있다. 또, 가문이라는 사회관계망의 성격, 전체 사회관계망 속에서 가문의 위상 등도 달리 나타난다. 즉, 가부장의 유무와 구성원의 과실(過失), 가문과 왕실 사이의 거리, 왕실 내부의 갈등, 가문 주변에 형성된 네트워크 등이 작품마다 각기 다르게 설정되었고 공주와의 늑혼 또한 그러한 사회관계망의 산물이다.

세 편의 작품들은 늑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가는 등장인물의 발언도 차이가 있다. 이는 작품 전편에서 강조되는 표현방식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는데, 이같은 표현상의 특징은 사회관계망 속에서 가문의 자리를 확

---

\* 서원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작품 속 가문 구성원들의 소망이 반영된 결과이다. 가문의 처지가 다르면 전언의 방식도 달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가장의 부재, 가문 갱신, 공주의 결혼, 혼맥(婚脈), 부부갈등

## 1. 서론

삼대륙계 소설은 가문의 유지와 번성을 구성원 공동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이상의 실현은 중세인들이 추구했던 오복<sup>1)</sup>과 관계된다고 하겠는데, 작품에서는 구성원들의 긴 수명, 남성들의 높은 벼슬, 많은 자녀와 함께하는 삶, 그리고 왕실을 포함한 외부 세력의 인정 등을 가문 번영의 요건으로 지목할 수 있다. 사건이 발발하고 해결되는 과정들은 결국 그러한 목표달성을 예비하는 과정이라고 하겠는데<sup>2)</sup> 그 가운데 늑혼 화소가 포함되어 있다.

늑혼은 신랑과 신부 중 어느 한 쪽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이루어지는 혼인이다. 혼인이 인륜지대사로 인식되던 시대이니 만큼 억지 혼인은 그것을 강제할 힘을 필요로 하는데, 고전소설에서는 대개 그러한 힘을 행사하는 주체가 왕실이다. 황제나 황후, 또는 왕과 왕비, 귀비, 태후 등이 혼사에 개입함으로써 늑혼이 성사되고 이는 가문과 왕실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계기가 된다.

삼대륙계 소설에도 작품마다 늑혼이 등장한다. 대체로 공주의 하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사건으로 제시되는데<sup>3)</sup> 군신 사이의 권력 구도를 감안할

1) 『서경』 『홍범편』에는 오복(五福)이 수(壽)·부(富)·강녕(康寧)·유호덕(攸好德)·고종명(考終命)으로 열거되고, 『통속편(通俗編)』에는 오복이 수(壽)·부(富)·귀(貴)·강녕(康寧)·자손중다(子孫衆多)로 제시되어 있다.

2) 작품 속 가문은 필연적으로 별열을 지향하고 작품은 그 완성으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다. (조광국, 『閥閥小說의 향유층에 대한 고찰: 閥閥階層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30권, 2002, 103쪽 참조).

3) 늑혼의 성격을 지닌 공주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박영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공주혼의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회, 2005, 이수희,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전연구회, 2009, 김서윤, 『고소설에 나타난

때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왕실의 청혼은 일방적이라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부마로 지목된 이상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란 어렵고 또 용납되지도 않아서 공주와의 혼인은 대부분 늑혼의 성격을 지닌다. 작품에서는 극적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남주인공에게 이미 정혼한 여성이 있기에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설정한다.<sup>4)</sup>

본고에서는 삼대륙계 소설에 등장하는 공주의 하가를 대상으로 작품 간의 동이점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개별 작품의 지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다. 비교 대상 작품으로는 삼대륙계 소설 가운데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성현공숙열기>를 선택하였다. 모든 대하소설을 대상으로 늑혼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늑혼이 단지 흥미만을 위해 삽입된 요소가 아니라 작품 전체의 성향과도 일정 부분 연관된다는 가설을 확인하는 데는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작품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작품 수를 제한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늑혼 사건의 작품별 차이점을 찾아보고, 3장에서는 늑혼 사건의 귀결이 가문과 왕실 위주로 구성된 사회관계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며, 4장에서는 늑혼 사건에서 오가는 인물들 사이의 전언이 갖는 특징이 전체 작품의 성향을 대표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이 진행된다면 개별 사건으로서의 늑혼이 전체 작품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특징적인 발화 장면을 제시할 기준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sup>5)</sup>

---

공주혼 모티프의 문학치료적 함의], 문학치료연구 3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등에서 시도되었다. 이들 연구성과를 참조하되 일반적으로 공주혼이 모두 늑혼은 아니며 늑혼 또한 모두 공주혼이 아니기에 본고에서는 ‘늑혼’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신부가 공주라는 사실보다 강제력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혼인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4) 따라서 늑혼화소는 부부갈등, 처처갈등 외에 군신 갈등까지 복합적으로 작동시켜 사건을 풍부하게 엮어낼 수 있는 소재이다.

5) 특정한 대목의 발화를 찾아서 제시하는 일은 현대의 독자들에게 대하소설에 접근하도록 하는 경로를 마련할 유일한 방안으로 보인다. 전체 작품의 개성이 작품 곳곳에서 발현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 대목이 굳이 늑혼 관련 내용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 2. 늑혼의 진행 과정 비교

집안의 분란을 해결하고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초래한 인물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문 구성원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원인 제공자는 축출되기도 하고 새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성현공숙렬기><sup>6)</sup> 세 작품에는 그런 역할을 맡은 인물들이 다수 등장한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인 경우에도 작품에 따라 세부 설정이나 인물의 처리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공주의 하가와 연관된 늑혼 또한 그러한 사건에 해당한다.

<소>에서는 소운성과 명현공주, <유>에서는 유세형과 진양공주, <성>에서는 임세린과 효장공주가 각각 결혼한다. 이들 세 쌍의 남녀가 결혼하는 과정은 매우 흡사하다. (1)왕실의 청혼 - (2)부마와 공주의 불화 - (3)부마의 증혼 - (4)처처 갈등 - (5)부부갈등의 해소라는 단계를 거쳐 늑혼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이 비로소 해결된다. 여기서 부마들은 호결적 기질이 강하면서도 장남은 아니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은 공주를 결혼 취방꾼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쉽사리 부부로서 화합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주가 맡은 역할은 작품마다 다르며 그로 인해 갈등의 심화와 해소 과정도 작품마다 달리 나타난다. 세 작품을 차례로 살펴 보자.

<소>에서 명현공주는 소운성과 결혼한 후 남편은 물론 시가의 구성원 모두와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다. 그녀가 공주라는 신분을 내세워 시가 인물들에게 신하로서의 예를 갖추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 소운성이 형씨를 잊지 못하자 남편을 비난하고 형씨를 사지에 몰아넣기도 하다가 마침내는 시가의 어른들까지 비난하기에 이른다. 결국 그녀는 벌을 받아 시가에서 고립되고 남편에 대한 증오를 풀지 못한 채 19세의 나이에 쓸쓸하게 숨을 거둔다.

<유>에서 진양공주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인물로<sup>7)</sup> 시가 구성원 모두

6) 이하 각각 <소> <유> <성>으로 줄여 표기한다.

7) 고전소설을 등장하는 여인들을 모아 작품을 일군 <여와록>을 통해서도 진양공주의 덕성과 품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작품 내에서 남편 유세형이 7면에 이르는 긴 제문을 작성하여 조상하는 데서도 그녀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제문의 길이가 인물에 대한 평가의 높고 낮음과 반드시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긴 제문이 쓰여지는 경우 해당 인물

의 인정을 받는다. 다만 남편 유세형과 두 번째 아내 장씨만이 예외여서 이들이 진양공주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게다가 장씨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진양공주를 음해하고 결국 친정으로 쫓겨간다. 진양공주는 그런 장씨를 돌아오게 하여 정성으로 타이르고 이에 감동한 장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새사람이 된다. 진양공주는 남편 유세형과의 관계도 회복하여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지만 천수를 거스르지 못하여 2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

<성>에서 효장공주는 임세린의 아내가 된다. 소씨와 혼인을 하려던 찰나에 이를 중지하고 효장공주와 결혼해야 했던 임세린은 효장공주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온갖 행패를 부린다. 더구나 공주의 오빠인 한왕이 악행을 일삼고 급기야 소씨를 납치하려 하자 임세린은 그 일들이 모두 효장공주의 흉계라고 억지를 부린다. 하지만 공주는 위기에 빠진 소씨를 구출하고 남편 임세린 또한 억울한 누명을 벗도록 돕는다. 분란이 해결된 후에도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던 임세린은 마침내 공주의 본심을 알고 부부가 화합한다.

이처럼 세 작품에 등장하는 공주들은 기왕에 오가던 혼담을 무위로 돌리고 시집을 와서 남편의 구박을 받는 처지이지만 작품 속 역할에 차이가 있다. 명현공주가 형씨를 음해하는 가해자라면, 진양공주는 장씨의 음해를 받은 피해자이고, 효장공주는 소씨를 위기에서 구하는 구원자 역할을 한다. 그 과정에서 명현공주는 제거되고 진양공주는 장씨를 거둬나게 하며 효장공주는 집 안팎의 무뢰배들로부터 집안을 수호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른 역할은 여러 개의 선택지 가운데 우연히 뽑힌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마와 공주의 결혼이 비슷한 구도를 갖추면서도 하필 공주의 역할에 차이를 두는 것은 이들 작품에서의 늑혼이 동질적인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주들의 세 가지 삶은 그 중에서 어느 경우를 골라도 무방한 선택지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작가는 차이가 나는 부분을 통해서 작품의 지향을 달리한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작품마다 다른 부분으로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만약, 공주

개인의 삶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그녀들이 수난을 겪고 죽음에 이르면서 행복과 불행의 엇갈린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인성이나 운명 탓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명현공주는 악독한 심성을 지녔으니 벌을 받아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고 진양공주는 재주가 빼어났지만 천수를 어기지 못하여 죽었으며, 효장공주의 부부 화합은 그녀의 선행에 대한 보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 보면 공주들의 삶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해명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먼저, <소>를 보자. 소씨 가문에서 젊은 나이에 죽은 이는 명현공주가 처음이 아니다.

(양부인이) 여아의 실절함을 알고 발연대로하여 좌우로 교영을 불러 당하에 꿇리고 수좌 왈 “네 타향에 적거하나 몸을 깨끗이 하여 돌아올 것이어늘 문득 실절하여 죽은 아비와 산 어미에게 욕이 미치며 조선에 불행을 끼치니 어찌 차마 살려두리요. 친가에 불초녀요 구가에 더러운 계집이 되어 친지간 죄인이니 당당이 죽음직한 고로 금일 자모의 정을 그쳐 한 그릇 독주를 주나니 쾌히 먹으라”<sup>8)</sup>

양부인의 둘째 딸 소교영은 남편이 역모에 연루되어 죽자 귀양을 갔다가 사면을 받아 집에 돌아온다. 그런데 귀양지에서 사귀었던 남자가 교영을 찾아오자 양씨는 마침내 저간의 사정을 알게 된다. 인용문은 딸의 실행에 화가 난 양씨가 교영을 꾸짖으며 자결하라고 핍박하는 대목이다. 교영은 용서를 빌지만 양씨의 완고한 태도와 동생 소경의 방조 속에 결국 독약을 먹고 죽는다. 시가에는 음란한 며느리이고 친정에는 더러운 딸이라는 이유로 교영의 시신은 어느 쪽 선산에도 안장되지 못한다.

다음 인용문은 소운성이 동생 소운숙의 아들, 즉 조카 세명을 활로 쏘아 죽이는 부분이다.

(소운성이) 석궁을 당겨 한 살에 세명의 왼쪽 눈이 맞아 꼭뒤로 꿰뚫고 나가니 한 소리를 지르고 말 아래 떨어져 기절한지라<sup>9)</sup>

8) <소현성록> 1권 39면(『소현성록』1, 정선희 조혜란 최수현 허순우 역주, 소명출판, 2010, 406쪽).

9) <소현성록> 14권 73면(『소현성록』4, 정선희 조혜란 최수현 허순우 역주, 소명출판, 2010,

소운성은 조카 세명이 도적의 무리와 어울린 사실을 알고 그를 죽인다. 골육을 살해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않지만 사사로운 정보보다 의리가 중요하다라는 소운성은 세명의 죽음이 가문에 다행한 일이라며 동생 운숙에게 자식의 머리를 베어 충성을 표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세명의 어머니 성씨가 자신에게 불만을 갖자 자신의 결단이 옳았다면서 화를 낸다. 이들 교역과 세명 외에도 <소>에서는 처처 갈등을 야기한 소경의 셋째 부인 여씨, 소운명의 셋째 부인 정씨 등이 축출의 대상이 된다. <소>에서는 가문에 문제를 일으킨 인물을 제거하거나 축출하는 방식으로 구성원을 배제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유>와 <성>에서는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 당사자를 주로 포용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처리된다. 대표적인 예가 임유린과 유홍의 경우이다. 두 작품에서 주인공 임희린과 유연은 동생들로 인해 곤경에 처한다. 임희린에게는 계모 여씨와 동생 임유린이 결탁하여 위해를 가하고, 유연에게는 아버지 유정경과 동생 유홍이 결탁하여 꺾박하고 누명을 씌운다.<sup>10)</sup> 모든 악행이 밝혀지고 나서 임유린은 도망을 가고 유홍은 벌을 받아 귀양을 가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유정경과 여씨는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임유린과 유홍도 새사람이 되어 가문으로 복귀한다.

가문에 죄을 지은 이를 용납하는 성향은 여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유>에서 장씨는 남편 유세형과 결탁하여 진양공주를 갖은 방법으로 모해하는 악녀 형상의 인물이다. 하지만, 진양공주의 노력으로 지위를 회복한 후에는 공주에 버금가는 덕성을 보이다가 공주가 죽은 후에는 공주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신한다. 유세형의 아들 유현의 세 번째 부인 왕씨 역시 남편과 양씨 사이를 시기하여 심각한 처처갈등을 경험하고 남편에게 똥물을 던지는 등의 패행을 일삼지만 가문에서 축출된 후 복귀하여 새사람이 된다.

왕씨가 아들을 얻으며 평생 한이 풀어져 밤낮 아들과 놀며 만사를 잊으니 온

520쪽).

10) 유정경과 유홍의 비행은 <유씨삼대록>의 전작 <유효공선행록>에서 기술된 내용이다. 전작의 성격이 <유씨삼대록>에 이어지므로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집안이 한편으로 웃고 한편으로 가련히 여겼다<sup>11)</sup>

인용문은 왕씨의 변화된 모습을 기술한 부분이다. 유세필의 둘째 부인 순씨 역시 온갖 결함을 안고 있는 인물이지만 선대의 인연과 남편의 두호 아래에서 그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다. 마침내 순씨는 자신이 낳은 딸이 태자비로 간택되는 영광을 보기도 한다. 또, 기녀를 아예 용납하지 않았던 <소>의 가풍과 달리, <유>에서는 유세형의 아버지 유우성의 첩이었던 기녀 찬향 월섬 등이 유세형 등의 보호를 받다가 죽어서는 유우성 곁에 묻힌다.<sup>12)</sup>

<성>은 <유>에 비해 포용력이 좀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유홍과 임유린을 비교하면, 유홍이 복귀한 후 별다른 역할을 맡지 않는 것과 달리 임유린은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을 뿐 집안에서 확실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의 딸은 태자비로 간택된다. 여씨와 임유린 외에는 집안 내부에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은 드물고 그에 따라 가문 내 인적 구성에 큰 변화는 없다. 그 대신에 외부에서 꾸며지는 흥계들로 인해 구성원이 집을 비우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어떤 시점에는 임씨 집안의 며느리 4인이 동시에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세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이 가문의 구성원으로 합류하거나 배제되는 부분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가 구성원의 악행을 응징하고 배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유>는 인물을 포용하고 감화시켜 가문에 합류하도록 하는 데 비중을 둔다. <성>은 구성원들이 결속하여 외부의 시련을 막아내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sup>13)</sup> 공주들의 엇갈린 삶은 그러한 가문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11) <유씨삼대록> 17권 43면

12) <유씨삼대록>에서 거의 유일한 응징 대상은 유현의 둘째 부인 장설혜이다. 그녀는 가문에 쫓겨난 후에도 왕실과 결탁하여 시아버지 유세형을 암살하려고 하는 등 집 밖에서 악행을 지속하다가 결국 남편 유현에게 참수를 당한다.

13) <유씨삼대록>에서 진양공주의 궁인들이 진양공주 사후에도 충직한 반면, 효장공주의 궁인들은 한왕과 결탁하기도 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 3. 늑혼에 관여하는 사회관계망

위기를 초래한 인물을 두고 가문마다 처결 방식이 달라서 늑혼의 결과도 달랐다는 사실을 좀더 확정할 수 있는 단서는 사회관계망의 차이이다. 늑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신랑이 속한 가문과 공주가 속한 왕실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이 재편된다.<sup>14)</sup> 작가는 이 가운데 의도적으로 특정의 관계들을 배제하거나 주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기술하기에 작품마다 사회관계망이 다르게 짜여지는데, 기실은 공주의 하가 이전과 이후에 계속해서 사회관계망은 배후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늑혼과 관련하여 사회관계망에서 주목되는 인자는 신랑과 신부, 가문, 가부장, 가문 주변 인물, 정치적 동료, 왕실, 왕실 주변 인물 등이 있겠으나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가문과 왕실 사이에 형성되는 긴장감이다. 소설에서는 주로 가문이 왕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데 늑혼을 대하는 가문의 입장이란 이중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늑혼은 특정 가문이 왕실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를 지니기에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다. 작품 속 늑혼들은 일차적으로 가문의 그런 욕망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세 작품에서 하나같이 작품 말미에 가문의 딸들을 태자비와 황후가 되도록 한 것도 그러한 욕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는 소경의 막내딸이 황후가 되며, <유>는 순씨의 딸이, <성>은 임유린의 딸이 태자비가 됨으로써<sup>15)</sup> 가문은 다시 인정을 받고 영화는 극에 달한다.

하지만 가문구성원들은 왕실의 인정을 받으려 하면서도 왕실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속내를 동시에 가진다. 그래서 왕실과 일정한 거

14) “사회관계망이란 개인이나 조직과 같은 행위자 집합체와 행위자들 사이의 이원적 유대(dyadic ties)로 구성되는 사회구조의 한 형태이다”(이재현, SNS의 열 가지 얼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인물을 둘러싼 사회관계망이란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거나 인물이라는 특정 인자의 역할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SNS 등이 출현하여 사회관계망 자체의 성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곤 하는 현대사회와는 관계망의 성격에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15) <성현공숙혈기>의 경우에는 연작 <임씨삼대록>의 말미에 똑같은 사건이 기술된다.

리를 두려 하고 혼사는 가문에서 주장할 일임을 내세움으로써 왕실보다 가문을 우위에 두려는 생각을 숨기지 않는다. 늑혼의 제기에 대해 가문에서 처음에 반발하는 반응은 그런 이중적 사고의 발로이다.

왕실의 청혼에 대한 태도는 작품들에서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지만 가문의 처지와 가문과 왕실이 구체적으로 맺은 관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늑혼의 시작과 끝은 그런 사회관계망 속에서 진행된다. 먼저, 가문의 처지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기로 한다.

<소>는 가장의 죽음이 첫 시련으로 가문에 찾아온다. 그 빈자리를 메우는 이는 양씨이며 양씨는 아들 소경과 함께 작품에서 줄곧 가부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유>의 유씨 가문은 유정경에서 유홍과 유연, 백경과 유우성, 유세기 등으로 가장권이 계승된다. 형제 간에 뒤바뀐이 나타나고 조카를 후계자로 선정하기도 하지만 가문의 유지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유정경, 유홍, 유우성 등이 결합있는 인물로 그려지며 고집스레 아내 정씨를 핍박하는 유연이나 후계자이면서도 가문밖 인물들과의 교류가 없는 백경도 결격 사유를 지녔다고 판정할 수 있다.

가문은 유지되지만 가부장에게 결합이 있다는 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유>에서 강조되는 것은 가부장의 교체를 통한 가문의 갱신이다. 교체 방법은 가부장이 일찍 죽어 후계자가 뒤를 잇거나 후계자에게 가권을 물려주고 집안일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소>에서 양씨가 100살을 넘게 살면서 아들 소경과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뜨는 것과 비교하면 <유>와 <성>은 가부장의 지위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또, 소씨 가문의 자녀들이 부모의 의중을 탐색하느라 바쁘고 부모의 지시를 사건 해결의 지침으로 삼는데 반해 유씨 가문의 자녀들은 가장보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지하여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성>의 임씨 가문은 어머니와 두 아들이 가장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품이 시작된다. 그런데 아들들은 각각 관인과 처사라는 다른 길을 걷는다. 이들에게 가부장의 존재를 시험하고 가문을 위협하는 시련이 닥쳤을 때 임씨 가문은 형제가 서로를 보완하며 사건을 해결한다. 이런 대응 방식이 가부장의 자리를 지키고 가문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처럼 소, 유, 임 세 가문의 처지가 다른 상황에서 늑혼의 발생은 가장 권을 확인하는 시험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가장의 존재를 분명하게 세워야 하는 <소>에서는 가문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왕실의 권위는 인정할 겨를이 없다.<sup>16)</sup> 명현공주에 대하여 가문구성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 한결같은 태도는 공주의 악행 탓도 있지만 가문에 당면한 과제가 가장의 옹립이기 때문이다. <유>에서는 가문이 왕실과 밀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부장의 결함 같은 가문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문이 갱신되어 가는 수단으로 늑혼을 활용한다. 가부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외부 인물의 영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진양공주의 하가는 <소>와 달리 가문구성원 모두의 주목을 받는다.

<유>에서 갱신이라는 과제는 가문에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왕실에도 해당한다. 황제는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냥을 나갔다가 죽어서 임금자리도 다른 황족에게 넘어간다. 진양공주는 가문과 왕실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고 권위를 인정받아 여주공의 자리에까지 오른다. 그러나, 진양공주가 나서서 모든 일을 해결했어도 가문과 왕실의 갱신이라는 과제는 다시 제기된다. 진양공주가 가문과 왕실 모두와 관계망을 이루고 있지만 스스로가 가부장의 자리를 대신할 인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진양공주의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시할아버지 유연이 그랬던 것처럼 공주는 죽음을 맞는다. 유연의 자리는 백경과 유우성이 대신하지만 공주의 자리는 개과천선한 장씨가 대신한다. 설초벽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순씨의 딸이 태자비가 되는 사건도 어미의 부족함을 자식들이 보완하고 갱신하는 사례여서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유>의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성>은 앞의 두 작품과 달리 왕실과 밀착된 가문이 제시된다. 임한규 형제는 모두 왕실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임희린과 결혼한 주씨는 주담이라는 종친의 딸이기도 하다. 주씨는 그런 인연 때문에 공을 세운 후 공주의 작위를 받는다. 임희린과 임세린 형제가 모두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지고 집안에서 임유린

16) 조혜란은 이를 가문이기주의적 성향과 형성기 가문이라는 점으로 설명하고 있다(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외식의 이면』,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그러나 가문이기주의는 모든 가문에 두루 해당하는 것이고, 작품의 전편에서 그런 특성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가문 내부 문제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는 서술상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 악행이 계속되는데, 임희린과 임세린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간다. 늑혼은 이러한 대응 방법을 갖고 있는 임씨 가문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하나이다.

왕실을 제외한 사회관계망에서도 소,유,임 세 집안은 차이를 보인다. 먼저, 소씨 집안은 가장의 이른 죽음으로 이렇다 할 사회관계망이 부재한 상태이다.<sup>17)</sup> 그런 상황에서 늑혼은 왕실과의 인연을 맺어가는 주요한 장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소씨 집안에서 주요 관심사는 가장권의 확립과 인정이다. 주변인물과의 관계망 형성은 부차적인 문제처럼 기술된다. 소경이 맺는 친교가 과거장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과 이루어진다거나 결혼을 통해 형성된 관계가 뚜렷이 부각되지 않는 점은 소씨 집안이 외부의 관계망에 무관심하거나 관계 생성에 옹색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외부로부터 영입되는 인물 양녀 윤씨, 운명의 처 이씨, 운성의 첩 소영 등은 관계망이 없다는 이유로 소씨 집안에 편입된 인물들이라 사회관계망 확대에 기여하지 못한다.<sup>18)</sup> 또, 소경이나 소운성은 처가 인물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 결국 <소>에서는 관계망의 형성이나 확대보다 가부장을 정점에 둔 구성원의 바른 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소>와 달리 <유>에서는 좀더 다양한 외부의 관계들이 제시된다. 혈맥으로 얽힌 종실 인물들,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 혼맥으로 얽힌 인연들이 작품의 시종에 자주 출몰하는데 이러한 관계망을 기반으로 가장의 결함이 보완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성>은 가문 안팎에 형성된 사회관계망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위협이 계속된다. 반씨 남매나 한왕의 행위는 따라서 가문에 대한 도전이자 폭넓게 형성된 관계망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작품의 주된 내용은 이들의 비행을 징치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소>는 가문의 수립과 유지에, <유>는 가장의 갱신에, <성>은 가문에 닥친 위기 해결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음을 밝혔다.

17) 서정민, 「가권(家權) 승계로 본 <소현성록> 가문의식의 지향」, 『국문학연구』 30, 국문학회, 2014), 이지하, 「<소현성록>의 이중성에 내재된 욕망의 실체」,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학회, 2015) 등을 참조.

18) 윤씨는 소씨 집안의 배려 속에 혼인 후 딸을 낳고 그 딸은 황후가 된다. 그러나 윤씨의 마음과 달리 자식들은 소씨 집안에 거리감을 두어 서먹하게 지내는 사이가 된다.

늑혼으로 공주를 맞아 생겨나는 사건들은 그런 작품별 관심사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관계망 유지에서 세 집안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불교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다. 세 집안 모두 늑혼 사건이 왕실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반응으로 나타났듯이 불교에 대해서도 공히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그 관계를 조정하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9)</sup>

세 작품에서 목격되는 불교에 대한 태도는 큰 차이가 없다. 유교와 불교가 길이 다르고 불교를 가까이하는 것은 성교를 어기는 일이라는 생각이 기본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불교를 작품 서술에서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작품별 차이를 확인해 보기로 하자.

<소>에서 불교는 가장인 소경의 능력을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 그는 개인적으로 절에 들러 요괴를 다스리고 적극적인 척불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겉으로는 초월적인 현상들을 인용한 부분이 적지 않으나 불교나 도교는 물론 초월계 전체가 소경이나 소씨 가문의 구성원을 중심에 두어야 의미를 발하는 구도가 설정되어 있다. 불교와 관련해서 어머니 양씨와 의견 대립을 보이는 대목 또한 가문 문제로 처리되고 만다.

<유>에서 불교는 유현의 처 정씨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건넨다. 고립무원의 처지였던 정씨는 사찰에 머무른 사실 때문에 자책한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은 많지 않다. 유현의 처 양씨가 왕실과 결탁한 정설해 때문에 곤경에 처했을 때 하태후가 사찰로 피신하라고 권고하고 이에 대해 양씨가 거부 의사를 표하는 정도가 불교에 대한 반발의 전부이다. 양씨와 처처갈등을 겪은 왕씨가 절에 다닌 것을 두고 집안에서 농담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유>의 배불 감정이 그리 심각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성> 역시 불교 자체에 호의를 갖지 않으나 범사들이 등장하여 관계망 유지에 도움을 주거나 관계망을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몇 차례 목격될 뿐이다. 불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이 사라진 대신 흥미소 가운데 하나로 불교 관련 내용을 삽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 소현성록의 유불대립에 대해서는 이주영, 『<소현성록>의 유불 대립과 공간 구성의 함의』(『국문학연구』 23, 국문학회, 2011)을 참조.

이처럼 가문의 사회관계망 속에 불교가 약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세 작품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소>에서 불교는 가장의 잠재 능력을 확인하는 수단이고, <유>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빌리는 도구이며 <성>에서 기존의 사회관계망을 드러내며 불교가 사건의 방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 4. 늑흔에서 표출되는 전언의 특성

늑흔은 가문구성원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에 포함된 인물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작품마다 오가는 메시지들은 나름의 특성을 보인다. 이는 구체적인 혼인 과정이 작품마다 다르다는 점에 일차적 원인이 있겠으나 그러한 전언상의 특성이 늑흔에만 국한해서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늑흔 관련 전언의 의미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그러한 성향의 전언들은 길다란 분량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잦다는 점에서 작품의 성향이나 작가의 지향과도 관계될 수 있다.

<소>의 경우, 늑흔과 관련한 전언 가운데 명현공주가 시가어른들을 향해 쏟아내는 극단적인 발언이 주목된다.

“석현의 딸과 양문광의 딸은 너희들 간부가 몹쓸 자식을 낳아 나의 일생을 그릇 만들고 나중은 거짓말로 임금께 헐뜯느냐.”

“필부 소경아 네 무슨 연고로 나의 허물을 성상께 참소하였느냐. 내 너와 더불어 한 칼에 죽으리라”

“그대 소광의 교훈을 알지 못하고 양씨의 폐악함을 받아 자랐으들 예의를 이대도록 모르느냐”<sup>20)</sup>

황족의 권위만을 믿던 명현공주는 시아버지 소경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궁지에 몰리자 위와 같은 막말을 쏟아낸다. 시조모 양씨의 친정아버지

20) <소현성록> 8권 66~67면(『소현성록』3, 정선희 조혜란 최수현 허순우 역주, 소명출판, 2010, 469~470쪽).

와 시모 석씨의 친정아버지 이름을 직접 거명하는가 하면 시부 소경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죽자고도 하고 급기야는 시조부모를 한꺼번에 들먹이며 시부를 공격하기도 한다. 이에 소경은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며느리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심한다. 그래서 자신을 만류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 그러다가 모친 양씨로부터 공주를 죽이지 말라는 글을 전달받고서야 마음을 돌린다. 심각했던 충돌이 양씨가 개입하면서 현존하는 가문의 위계질서를 확인하는 선에서 급하게 정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명현공주의 과도한 발언은 그녀의 성격 탓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소경과 양씨의 의사 표명도 일방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런 당당하거나 일방적인 의사 표명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 <소>의 특징이다. 양씨와 소경 외에도 소운성, 소월영, 화씨 등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의사를 관철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 집안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집안 서열이 높은 인물이 승리하지만 집밖에서는 대체로 소씨 집안 인물들의 의지가 승리한다. 그러나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충돌도 있는데 소경의 셋째 부인 석씨와 소경이 충돌하는 장면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소경의 셋째 부인 여씨로 인해 둘째 부인 석씨가 누명을 쓰고 친정으로 떠나게 되자 소경은 모든 죄를 석씨의 탓으로 돌리고 독약을 먹고 죽어 친정의 오명과 자신의 분노와 석씨의 죄를 씻으라 압박한다. 이에 석씨는 자신은 죄가 없으니 죽으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항변한다. 이에 소경이 혼서를 내놓으라 요구하고 석씨는 흔쾌히 내어놓는다. 잘못된 석씨를 오해한 소경에게 있으나 그의 과도한 요구에 석씨 또한 지지않고 맞서는 모습을 보인다. 집안을 관리하는 인물로 인해 부부 사이에 틈이 생겼을 때 도 소경은 화씨에게 10년의 은정을 끊자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에 화씨는 월영의 도움을 받아 4면에 걸친 긴 글을 써서 남편에게 보낸다. 이후 소경은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지 않는다.

이처럼 가문구성원들이 견해 차이로 충돌할 때 다툼의 과정은 자세하게 기술하면서 승패를 명확히 하지 않는 사례로는 불교를 사이에 두고 입장을 달리한 양씨와 아들 소경의 대립이다. 양씨는 아들 소경과 손자 소운성을 향해 “불도가 비록 패도이나 또한 한나라 때부터 삼대를 내려오니 (...) 불

도를 버려두어 제 소임을 평안히 하고 네 심히 싫을진대 친히 승상을 앓을 따름이라. 어찌 승상하는 남조차 논박하며 의논을 과도히 하”느냐며 두 사람을 꾸짖는다. 그러나 소경은 물론 소운성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 해결의 실마리는 소경이 할머니에게 무례를 범한 아들 소운성을 질책하는 선에서 찾아지는데, 종교관의 대립이라는 심각한 사안조차 집안의 서열 문제로 희석시켜 봉합하였다.

<유>의 늑혼 부분에서 자주 나타나는 전언은 진양공주가 오해를 풀도록 남편 유세형을 설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을 변호하는 내용이다. 장씨를 남편의 둘째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일을 성사시킨 것도 그러한 설득과 변호의 결실인데 일이 성사된 후 공주는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전한다.

“사람의 회복이 다 하늘에 달려 있으니 어찌 조그마한 병으로 자잘한 말씀을 하십니까? 다만 침이 깊은 궁궐에서 세상일을 알지 못하므로 막연히 알지 못하였다가 이제야 들으니 낭군께서 이전에 병채를 준 숙녀가 있는데 그 여자가 절개를 지키며 깊은 규방에서 홀로 늙기를 원한다 하니 어찌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모두 침의 탓이니 더욱 부끄럽습니다. 군자로 하여금 박행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을 제가 몹시 놀라워하며, 이미 어마마마께 주달하여 군자와 장씨 여자의 결혼에 대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원컨대 군자는 안심하고 몸조리하시어 혼례의 시기를 어그러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sup>21)</sup>

이에 대해 유세형은 “뜬구름을 쓸어버리고 맑은 하늘을 본” 듯한 느낌을 갖고 자신과 장씨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한다. 그러자 공주는 말을 꾸며 할 필요가 없다고 정색하며 몸을 보호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유세형은 공주의 바른 말에 탄복하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한다. 유세형을 향한 진양공주의 설득은 이후에도 계속된다. 그런 설득의 정점에 진양공주의 유서가 있다.

신첩(臣妾) 진양은 머리를 조아려 거듭 절하옵고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한 통의 글을 주상 폐하께 올리나이다. ... 신의 남편 유세형은 나라를 위해 일한 공로

21) <유씨삼대록> 2권 14면.

와 명예로 여러 대에 걸쳐 중요한 벼슬을 한 집안 출신으로서 그 운명을 나라와 함께 한 신하입니다. ... 어찌 반역하려는 뜻을 두어 만대(萬代)에 죄인이 되고 가문을 멸망케 하겠나이까? ... 신의 못난 아들 신병부시랑 유현이 일찍이 전 시랑 장원경의 딸을 첩으로 들었으나 그 행실이 예와 도에 어긋나고 규중의 참람한 원역이 사림에 들림직 하지 않은 일이 있는 까닭에 신의 남편 유세형이 그 어질지 못함을 원통히 여겨 강제로 내쫓고 다른 집에 개가하기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 성상이 죽은 신하를 어여뻐 여기시어 은혜를 입는다 해도 하늘에 계신 선왕들의 명령께서 반드시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사사로운 정만 생각하고 대의(大義)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표문을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며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오며 물러나 근심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거듭 절하오니 바라옵건대 하늘의 뜻을 살펴 주옵소서.<sup>22)</sup>

진양공주는 죽으면서 두 편의 글을 남긴다. 한 편은 궁중에 암투가 발생했을 때 분노한 유세형을 달래는 데 쓰이고 위에 인용한 4면 분량의 긴 유서는 유세형이 역모를 꾀했다는 이유로 죽게 되었을 때 임금에게 보내져 남편과 아들의 누명을 벗기는 데 쓰인다. 진양공주의 생사를 넘나드는 설득이 늑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진양공주가 남긴 유서는 <소>에 자주 등장하는 편지와 건주어 볼 수 있다. <소>에서 편지는 대면하기 싫은 상황에서 건네지는 경우가 많아 내용도 혈문이나 질책이 주류를 이룬다. 그렇다고 해서 편지를 받은 인물이 당장 변하지는 아니며 변화 여부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편지와 무관하게 이야기의 진행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진양공주의 편지는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변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소>의 편지들과 역할이 다르다.

<유>에서는 이밖에도 유세형의 며느리 양벽주가 남편 유현을 설득하는 등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주로 여성이 설득의 주체가 되고 남성이나 왕실의 인사 등 권력자들이 설득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모습은 작품 속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문이 왕실에 비해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경향과도 관계가 있다.

<성>에서 보이는 전언상의 특성은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임

22) <유씨삼대록> 12권 16면.

세린과 효장공주 사이에는 늑혼에 대한 오해와 기질적 대립, 그리고 주변 인물의 개입 등으로 사건이 빈발하면서 대화가 잦은데 두 사람은 예외없이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개진한다. <유>에서 진양공주가 남편의 오관을 시정하고 달래기 위해 주로 대화를 청했다면 <성>에서는 임세린의 억지에 효장공주가 반박하는 경우가 많다. 임세린에게는 자신과 소씨의 결혼이 효장공주라는 훼방꾼을 만났다는 불쾌감이 있고 효장공주는 자신의 오라비 한왕의 악행으로 인해 자신이 누명을 쓴 데 대한 억울함이 있어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대화의 빈도도 높고 대화가 지속되는 시간도 길어진다. 그러나 외부의 공격에는 함께 맞서야 할 공동체라는 점에서 둘 사이의 견해 차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부부가 공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긴 대화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며, 부부의 결속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부부 각자의 입장 차이가 노출되려면 숨김없는 의사 표명이 필요함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주로 오가는 것이다.

## 5. 결론

삼대륙계 소설에 속하는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성현공숙렬기>를 대상으로 늑혼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각각의 사건들은 작품의 성향과 일정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가문에 용납할 수 없는 구성원은 과감히 배제해 버리는 <소현성록>, 결함있는 인물을 포용하고 개과천선하도록 유도하는 <유씨삼대록>, 가문을 겨냥한 외부의 위협에 맞설 힘이 필요한 <성현공숙렬기> 등 작품의 개성이 늑혼 사건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연관성을 긴밀하게 해주는 구체적 지표로는 작품마다 차이를 보이는 사회관계망을 지목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은 작품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각각의 가문에서 가부장의 처지가 가문의 특성이나 관계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작품별로는, <소현성록>은 가부장의 옹립과 권위 확인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며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있고, <유씨삼대록>은 세대 교체 등을 통해 결함 있는 가장을 갱신하여 이미 형성된 사회관계망 안

에서 가문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성현공숙렬기>는 가문 밖 사회관계망과의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 가문을 재정비하는 가부장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별 개성은 작품마다 강조되는 표현 방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씨 가문 인물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며 상대를 질책하면서 권위를 내세우는 경향이 강하다. 유씨 가문 인물들은 권력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전언들이 많이 보인다. 임씨 가문 인물들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고 가문 내 동요를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견을 개진한다.

본고에서 검토한 작품들은 각각 수많은 인물과 수많은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 결과는 작품 안에 내재된 다양성에 둔감하다는 비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데는 개별 작품에 대한 깊은 논의도 중요하지만 작품 사이의 변별지점을 확인하고 작품의 개성을 부각하는 일도 필요하다. <명주보월빙> 연작을 예로 들면, <엄씨효문정행록>은 비애 가득한 정조, <명주보월빙>은 사건 전개와 돌발성, <윤하정삼문취록>은 사회관계망의 형성과 재조정 등을 개성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개성이 잘 나타난 대목을 발췌해서 제시한다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숲에 견줄만한 <명주보월빙> 연작에 좀더 관심을 가지려 할 것이다.

작품 비교를 통해 사회관계망의 차이나 전언상의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다 보니 개별 작품 속 다양한 인간 관계나 전언의 다채로운 의미와 기능들에 대해서는 미처 기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조선후기 정치 세력과 작품세계의 상관관계 등도 다루지 못하였다.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 참고문헌

- 『성현공숙렬기』, 김기동편, 韓國古典小說叢書1~3, 太學社, 1988.
- 『소현성록』1~4, 정선희 조혜란 최수현 허순우 역주, 소명출판, 2010.
- 『유씨삼대록』1~4, 한길연 김지영 정억학 역주, 소명출판, 2010.
- 김서윤, 『고소설에 나타난 공주혼 모티프의 문학치료적 함의』, 문학치료연구 34, 한국 문학치료학회, 2015, 189-219.
- 박영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공주혼의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회, 2005, 5-35.
- 서정민, 『가권(家權) 승계로 본 <소현성록> 가문의식의 지향』, 『국문학연구』 30, 국 문학회, 2014, 203-227.
- 이수희,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 전연구회, 2009, 251-278.
- 이재현, 『SNS의 열 가지 얼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1-96.
- 이주영, 『<소현성록>의 유불 대립과 공간 구성의 함의』, 『국문학연구』 23, 국문학회, 2011, 169-192.
- 이지하, 『<소현성록>의 이증성에 내재된 욕망의 실체』,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 학회, 2015, 237-269.
- 조광국, 『閼閼小說의 향유층에 대한 고찰:閼閼階層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30권, 2002, 103-122.
-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73-107.

A study on Social Network and Messages Related  
to Marriage by Force (勒加婚)

- Focusing on *Sobyeonseongrok*, *Yussiamdaelok*, and *Seongbyeongongsukryeolgi*

Lee, Joo-young

One of major events included in three generation stories is marriage to a princess by force. This study compared the process of such marriages in *Sobyeonseongrok*, *Yussiamdaelok*, and *Seongbyeongongsukryeolgi*, and found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y were similar in that the son in law (駙馬) and the princess (公主) did not live in harmony for a while after marriage but the process of solving the problem was different among the stories. The difference arose not only from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son in law and the princess but also from the different aiming point of each story. Thus, this study explored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s in marriage by force in connection to the characters, episodes, expressions, etc.

The three works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the degree of rejecting or embracing family members who did wrong. This difference is believed to come from the different situations of each family in the social network. That is, each story set up differently the presence of the patriarch (家父長), family members' faults, distance from the royal family (王室), conflict inside the royal family, network with people around the family, etc., and marriage to a princess by force is also considered a product of a particular social network.

The messages emphasized by the three stories are also different. In addition, characters' utterances exchanged in the process of the marriage by force show such differences. These characteristic phenomena in expression are believed to reflect the family members' hope and effort to maintain the status of the family in the social network. That is, if families are different in status, their messages are also expressed in different ways.

keywords: absence of patriarch, family renewal, marriage of princess, marriage network (婚脈), marital conflict

접수일자: 2015. 9. 30.

심사기간: 2015. 10. 1. ~ 2015. 11. 10.

게재결정: 2015. 11. 10.